

# 강진영화관, 문화가 있는 날 국악관현악 음악회

강진영화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국립극장의 우수 공연 영상을 군민들에게 선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강진 영화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실황 영상인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 상영은 국립극장의 공연 영상 제작 사업인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국립극장의 우수 공연을 고품질 실황 영상으로 제작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강진영화관은 지난 4월 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굿모닝 독도'를 상영한 데 이어, 5월에는 국악관현악 공연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군민이 여러 장르의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관람객도 쉽고 즐겁게 우리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이다. 국악관현악의 풍부한 울림과 친근한 해설,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전통음악의 멋과 흥을 자연스럽게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악을 친숙하게 풀어내어 관객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영시간은 46분이며 전체관람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온라인 예매는 할 수 없다. 관람을 희망하는 군민은 상영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강진영화관 관계자는 "지난 4월 뮤지컬 '굿모닝 독도'에 이어 5월에는 국악관현악 공연을 마련해 군민이 더욱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전운재 기자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포스터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수도권 직거래로 양파 소비촉진 본격화

전남 무안군이 최근 양파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대도시권과의 농산물 직거래 교류 및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농협 신길지점에서 영등포농협,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무안조공)과 함께 '무안 양파 소비촉진 상생 캠페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지 양파 가격 회복과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말 조생 양파 출하 이후 수급 불균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장기간이 짧은 조생종 양파의 적기 소비 조치를 위해 전격 추진됐다.

무안군과 무안조공, 영등포농협은 긴밀한 협력으로 무안산 양파 100톤(1.5kg 기준 66,560방)을 수도권에 직거래 형식으로 공급한다.

/서용운 기자

## 목포시, 적극행정 교육 실시...시민 서비스 강화



2026년 목포시 적극행정 교육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최근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목포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의 적극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적극행정 분야 전문가가 ▲적극

행정 국민신청 사례 ▲소극행정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목포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 발굴,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써 오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관련 제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활력조직 만들기' 워크숍 성료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열린 '찾아가는 협력교육-활력조직 만들기'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

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 간 소통과 협력 ▲MZ세대 이해하기 ▲조직 내 문제해결 실천 과제 수립 ▲역할 전환 소통 등이 포함됐다. 워크숍 기간 센터 직원들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업무·소통 방식과 직업관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형성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을 높여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평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에 힘을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 영암 민주당 원팀, 6·3선거 압승 위한 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할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군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영암을 서남권 중심도시로 키우겠다."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영암지역 시·군 의원 후보들이, 21일 영암읍 오거리에서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영암 후보들은, 이번 6·3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영암을 더불어민주당 색인 파랑색으로 물들이는 압승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자

는 의지를 다졌다. 영암군 시·군의원 후보들에 이어 선거유세차 단상에 오른 우승희 후보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소개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영암 시·군의원 후보의 지역과 기호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 신안군, 칠발도 바닷새 번식지 연구환경 협약 추진

신안군은 최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와 '신안 칠발도 유류시설(환경저해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천연기념물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번식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노후 유류시설 정비를 통한 연구자와 관리기관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칠발도는 서해 항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등대가 위치한 섬이자, 전 세계 바다제비의 주요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국내 대표적인 철새·해양생태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바다제비·습새·칼새 번식지로 국내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류시설 노후화로 연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태 기자

